



정도전 '귀거래사' 8폭 병풍

# 정도전 '귀거래사' 8폭 병풍 발굴

## ..... 문화통plus 봄호 발간



(사)광주문화발전소의 '문화통plus' 봄호(통권 50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고려 말 정치가 삼봉 정도전이 나주 유배 시절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귀거래사 8폭 병풍'이 처음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이번에 소개된 병풍은 가로 34cm, 세로 55cm 크기의 침병(枕屏) 형태 작품이다. 나주 오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삼봉 정도전(鄭道傳, 1312-1398)이 나주 문명 유배 시기에 쓴 글로 보고 있다. 소동파의 '귀거래사'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싶다는 심정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병풍에는 총의부 관인과 함께 매창 조지운, 사천 이병연, 의재 지운영 등이 약 100여 년 전 남긴 배관(背款)이 확인돼 작품의 진

나주 유배 시기 남긴 글씨 최초 공개  
고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 추모 글도

본성을 뒷받침하는 단서로 평가된다.

잡지의 장기 연재 기획인 '전남의 마을 1박2일'에서는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와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를 집중 조명한다. 두 곳은 600년 역사를 지닌 원주이씨 집성촌으로, '10층 3호'를 배출한 충효의 가문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원주이씨는 고려 초 병부상서를 지낸 신우를 분관조로 한다. 호남 입향조는 강릉대호부사를 지낸 15세 이영화로, 계유정란의 화를 피해 해남 마산에 내려와 정착했다. 이후 후손들이 충신과 효자를 배출하며 지역의 명문가로 전해지고 있다.

문중 인물 가운데는 광해군 때 지관으로 이름을 알린 이의신을 비롯해 '춘면곡'을 남긴 이희정, 강진 백운동 별서를 조성한 이담로 등이 있다. 백운동 원림은 다산 정약용이 초의선사에게 '백운동 12경'을 그리게 하고 시를 남긴 곳으로, 조선 후기 풍류 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다.

이밖에도 이번 호에는 평생 12권의 책을 집필한 이비인후과 의사 조홍주 박사 이야기, 조용헌 칼럼, 고흥의 음식 문화로 소개된 진석화전, 오는 4월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하는 BTS 관련 글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발행인 지형원의 에디터 레터 '생략된 슬픔'도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이다. 지 발행인은 지난 1월13일 별세한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전 광주매일신문 회장)을 떠나보낸 심정을

글로 남겼다.

지 발행인은 글에서 "가진처럼 따르고 존경했던 마형렬 회장을 떠나보냈다"며 "영정 앞에 서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적으며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또 고인을 두고 "원칙과 기백 하나로 세상을 헤쳐 나온 분이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백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글 말미에서 지 발행인은 "생략된 슬픔의 시대지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편 '문화통plus'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잡지협회가 주관하는 '2026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돼 전국 문화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일의 빠짐과 기쁨=오이웍스 저자  
입사 직후의 똑딱거림부터 자신만의 업무 스킬을 키우는 모습, 회사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연봉협상과 동료의 이직으로 인한 공허함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 41편의 에피소드 끝에 실린 '질문'들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독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가볍게 시작해 묵직한 위로로 끝나는 물렁이 사원의 일상은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즐겁고 다정한 응원인 될 것이다. /Aamu press·1만9천800원



▲건강구독사=정재현 저자  
우리는 왜 부작용이 명확한 약은 불안해하면서, 효능이 불분명한 영양제는 아무 의심 없이 삼키까. 이 책은 영양제, 다이어트 약, 최신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현대인의 건강 신화를 과학과 사회의 언어로 분석한 책이다. 정재현 약사는 약은 위험하고 영양제는 안전하다는 익숙한 믿음이 SNS,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짚고, 이제는 오히려 효과가 확실한 약이 영양제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건강을 둘러싼 선택이 점점 더 복잡해진 시대, 이 책은 그 속에서 당신의 생각의 기준선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에피씨·2만원



▲이달의 전쟁사=이내우 저자  
전쟁의 역사적 맥락과 후대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로 겪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천 년 역사를 통틀어 무력 충돌이 없는 시대는 없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온 지구가 연결된 지금,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넓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다. 이웃 나라의 정치 상황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오고가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에 주시각이 출몰한다. 과거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곧 오늘의 질서와 내일의 평화를 지켜 나가는 열쇠가 된다. 전쟁을 일으키는 대립과 갈등도, 크고 작은 전쟁의 전략과 전투력도 모두 사람에게 달렸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그림씨·2만2천원



▲개와 고양이의 하루=엘리사 쿠퍼 지음, 엄혜숙 옮김  
"오늘 하루 기대되지?"라는 반려인의 질문에 "그럼!" 하고 반갑게 대답하는 개와 못마땅하다는 듯 "흐음..." 하고 답을 망설이는 고양이. 질문은 하나뿐이지만, 대답은 언제나 다르다. 따로 또 같이,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존재하는 둘. 이렇게 다른데 개와 고양이는 어떻게 한집에서 살아가는 걸까. 이 책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는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대에 주목한다.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공존의 의미를 궁금해 하는 모든 독자에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다정한 길잡이가 돼 줄 것이다. /시공주니어·1만5천원

# 기억의 빈틈서 걸어 올린 시대의 기록



## 정강철 산문집 '기억나지 않는 것들' 출간

중견 소설가 정강철이 산문집 '기억나지 않는 것들' (문학동네)을 펴냈다.

이번 산문집은 격동의 현대사를 통과하며 살아온 한 세대의 기억과 성장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이다.

고교 3학년 시절 5·18을 겪고 군부독재 시기를 지나 대학과 사회를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삶을

이어온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절제된 문장으로 풀어냈다.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 '빛물의 온도, 문장의 습도'에는 개인의 삶 속에 남아 있는 인상적인 기억들을 담았다.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지리산 종주에 나섰다 눈보라 속에서 비박을 했던 경험, 하얼빈역의 멈춘 시계에 얽힌 기억, 배넛저고리에 얽힌 이야기 등 개인의 체험과 사유가 교차하는 글들이 실렸다.

2부 '기억나지 않는 모든 것'에서는 군 시절 만난 선인병과 그의 친구였던 시인 기형도와 관련된 기억,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한자 교육 등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되짚는다. 특히 광주서석고등학교 3학년 시절 겪은 1980년 5월의 경험은 책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한다. 저자는 그 날 이후 오월의 기억이 삶의 방향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고 돌아본다.

3부 '일탈도 힘이 된다'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경험을 풀어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봄소풍 이야기 등 교



단에서 마주한 청춘의 순간들을 통해 삶의 선택과 길에 대한 사유를 담았다.

한편 정강철(사진)은 영광에서 태어나 1987년 '오월문학상'에 '타히티의 신양'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문학사상' 신인상에 잇달아 당선되며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장편소설 '신·열하일기', '블라인드 스킵', '원고' 등을 발표했으며 '바다가 우는 시간'으로 목포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수양산 그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지난 37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국어 교육에도 힘써왔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